

데스크 시각

의재미술관과 광주폴리



박진현 편집부국장·문화전문기자

지난달 중순, 오랜만에 찾은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은 봄기운이 가득했다. 계절도 계절이지만 예전에 보지 못했던 크고 작은 카페와 한화원미술관 등이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 생기가 넘쳤다. '내가 알던 그 양림동이 났나?' 할 정도로 산뜻하고 화사했다.

그중에서도 양림동 커뮤니티 센터 옆에 있는 근사한 '작품'이 시선을 끌었다. 정운학 작가의 '빛의 열매'라는 7m 높이의 미디어아트 조형물이었다. 나무 줄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 작품은 지난해 말 양림동 커뮤니티 센터 개관을 기념해 설치됐다.

낮에는 조형물의 화려한 색감이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밤에는 하나둘씩 켜지는 오색 조명이 주위를 밝혀 준다. 그때문인지 조형물 주변은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고 한다. 마침 기자가 방문한 날

도 양림동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기념사진을 찍는 10여 명의 관광객이 눈에 띄었다.

양림동의 상징 '빛의 열매'

그도 그럴 것이 '빛의 열매'는 이미 젊은 층 사이에선 SNS를 통해 양림동의 포토존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마을을 지키는 장승처럼 목 좋은 곳에 자리한 조형물 하나가 양림동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수년 전부터 300여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은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서서히 결실을 맺는 것 같아 내심 반기웠다.

문득 지난해 들른 제주도의 방주교회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서귀포 안덕면에 자리한 방주교회는 평일인데도 많은 관광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이 설계한 '작품'을 둘러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성경의 '노아의 방주'에서 모티브를 얻은 그는 얇은 연못을 만들어 자갈을 깔고 물을 채운 뒤 그 위에 은빛 건축물을 세워 앞으로 나아가는 방주의 모습을 재현했다. 방주교회 앞에서 만난 일부 관광객은 2박 3일 동안 제주도의 유명 건축물들을 둘러 볼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이처럼 근래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세세한 휴양지에서 테마가 있는 관광도시로 변신 중이다. 자연경관과 장소성

을 극대화한 거장들의 건축물과 조형물이 속속 들어서면서부터다. 한때 드라마 '울인'의 촬영지로 유명했던 섬지코지는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글라스 하우스'(레스토랑)와 본태 박물관, 스위스 건축가 마리오 보타의 유리 재질의 피라미드 조형물 '아고라' 등이 세워지면서 힐링과 명소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다고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광주에도 빼어난 건축물과 조형물이 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중심사 자락에 위치한 의재미술관과 전통문화관, 비엔날레 제 문헌(擬文軒), 양림동의 이장우가옥과 최승효고택, 도심의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폴리(folie·장식용 건축물)까지 다양하다. 마치 과거와 현대,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진 '건축의 향연'을 보는 듯하다.

건축, 문화 광주의 아이콘

의재미술관은 고(故) 의재 허백련 화백의 삶과 예술 세계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01년 지금의 자리에 들어섰다. 유명 건축가 조성룡 씨가 설계한 미술관은 노출 콘크리트와 목재·유리로 마감한 현대식 건물이 주변의 풍경과 조화를 이뤄 그해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1년 완공된 광주비엔날레 사무동인 제문헌은 한국 최고의 건축가로 꼽히는 승효상 씨의 '본신'이다. '문화를

제안하고 인도하는 집'이란 뜻의 이곳은 인근 용봉재와의 조화, 대형 스크린을 연상케 하는 건물의 전면 파사드가 돋보이는 건축예술의 표본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옛 전남도청에 문을 연 문화전당(연면적 16만 1237㎡)은 광주의 랜드마크로 부를 만하다. 재미 건축가 유규승 씨의 '빛의 숲'이라는 콘셉트(concept)로 설계된 건물은 무등산과 자연 채광을 끌어들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미학을 담아낸 걸작이다.

여기에 지난 2011년 광주비엔날레 특별 프로젝트로 탄생한 19개의 광주 폴리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문화 자산이다. 물론 초창기 도심의 장소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기도 했지만 지난 2013년 공간 개념과 주변과의 조화를 보완한 2차 프로젝트를 계기로 삭막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 쉼터'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건축물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도시와 국가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진화하고 있다. 때문에 광주시와 관련 기관들이 지역의 역사·문화·미학을 지닌 건축물에 스토리텔링을 입혀 투어 코스나 내놓는다면 국내외 관광객들을 불러모으는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불거리로 흥(興)한 도시, 그거야말로 문화 광주가 꿈꾸는 미래 아닌가.

/jhpark@kwangju.co.kr

은편칼럼

월파(月坡) 서민호 선생을 기리며



김병인 서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월파' 서민호 선생은 독립운동가이며 진보주의 정치가이자 위대한 교육자이다. 1903년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노동리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꿈에 지붕위에 둥근달이 떨어지는 것을 치마폭에 받았다는 태몽에 따라 아호를 월파라 하였다 한다.

11세 소년의 몸으로 일본 유학 길에 올랐으나 1916년 어머니의 병이 위중하다 전보를 받고 귀국하여 보성고보에 편입하여 다니다, '반도목탁(半島木鐸·독립선언의 내용을 담은 지하신문) 사건으로 1년간 징역처분을 받았다. 3·1운동을 위한 지하조직인 '전국학생대표' 운동부장으로 활약하다 1919년 4월 체포돼 16세에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상해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원했던 그의 장인 정태삼

목사와 장인에게 독립자금을 대 주었던 그의 아버지는 그의 항일사상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1942년에는 조선 어학회 사건으로 1년의 옥고를 치렀다.

해방 이후에는 1946년 10월 초대 광주시장에 임명되었고, 1947년 10월에는 전남도지사를 역임했다. 1952년 5월에는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고향인 고흥을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민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후 철저히 반독재투쟁의 선봉에 서서 앞장섰다. 1952년 7월 이승만대통령은 임기만료를 앞두고 국회에서의 간접선거를 통해서 재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수정안을 제기했다가, 1952년 1월 찬성 19, 반대 143표라는 압도적 다수로 부결되자 강권을 동원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미국 유학 시절의 친분을 떠나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1952년 4월 거창 양민학살 사건 국회조사단장으로 활약하던 중 현역대위인 서창선 살해 사건이 발생하여, 이승만의 재집권 음모에 걸림돌이었던 월파는 다수의 증언이 정당방위였음에도 불구하고 8년의 옥고를 치르고 1960년 4월 4·19혁명 이후 출소했다. 이는 이승만 정권과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제5,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연속 당선되

었으나 불의와 타협을 못하는 그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반대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였다.

월파의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큰 업적은 해방 이후 건립된 최초의 사립대학인 조선대학교의 설립에 기여한 공적이다. 월파는 이미 젊은 시절인 1935년에 보성군 별교읍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이에 상관없이 입학 할 수 있는 야학당적인 송명학교를 세웠다. 교육을 중시했던 월파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월파는 외국유학을 통하여 국권회복과 민족중흥을 위해서는 교육의 힘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자각했다. 해방 이후 1946년 6월에는 뜻을 같이하는 도내 기관장 및 유지들과 함께 민립대학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갖고 대학명칭은 조선대학으로 하고 조선대학 설립동지회를 결성하고 그 해 9월 조선대학원이라는 명칭으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광주야간대학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 허가를 받아 개교하였다. 이후 1947년 월파가 도시사 시절에 조선대학원이라는 명칭변경 허가를 받았고 동년 1월부터 전국에서 설립동지회 회원을 모집하고 회비 및 기부금을 모금했다.

이렇게 설립된 대학교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을 것이다. 외세의 압박에서 갓 벗어나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는 나라에서 일시에 7만 명이 넘는 국민이 기부하여 만들어진 대학이 조선대학교이다. 조선대학교는 우리 국민이 교육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다. 교육 성지가 다름없는 곳이다.

자원도 자본도 없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원인은 첫째가 교육이다. OECD에서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나중에 오랫동안 조선대학교는 초심을 잃어버린 경영진에 의해 많은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해왔다.

월파 서민호 선생에 대한 업적도 재평가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이 교육을 중시한 면도 있지만 월파 서민호 선생이 있었기에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였던 것이다. 조선대학교 정성과 문제로 조선대학교의 근원을 잊지 말고 시민적 지혜를 모아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심는 코너입니다.

기 고

야간공연 활성화로 지역관광 살리자



김형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광주의 문화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야시장을 기존 대인시장에서 송정역시장, 남광주시장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 얼마 전에 발표되었다. 지난 2011년 9월 개장한 대인야시장은 그동안 '별장' 이벤트와 이색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펼쳐 지금까지 이렇다 할 야간 관광객거리가 적었던 광주에서 관광활동의 지평을 크게 넓히는 계기를 조성하였다.

현재 낮 시간대의 관광은 곳곳에 산재한 명소와 역사 유적지, 유무형 문화재

등 자원요소가 비교적 충분한 상황이지만, 야간관광자원은 전량대나 순환버스를 통한 도심야경 조망과 각종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야시장이 거의 전부인 상황이다. 야시장의 확대 개장이 야간관광의 실행에 상당한 도움을 주겠지만, 단순히 먹거리만을 물량적으로 제공하는 상황만으로는 관광객들을 1~2시간 이상 오래 묶어두는 데는 한계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일정한 규모와 수준을 가진 정기적인 '주말공연 프로그램'의 도입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하자면, 우선 공연의 운영일자는 지역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주말을 만끽하는 금요일, 토요일 저녁시간대로 설정한다. 다만, 공연이 본궤도에 오를 때 까지는 토요일에만 운영하다가 점차 확대하는 전략적 접근은 필요하다고 본다.

공연의 주제와 내용은 중국 관광객을 겨냥하여 우선적으로 정음성의 일대기

를 그린 '항일음악가 정음성의 생애' 같은 이슈가 있는 음악극을 개발하여 선보이다가 이후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유명한 역사인물이나 사건, 세계적인 작품을 소개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연장소는 최적의 관람객의 편의와 공연시설 측면에서 아시아문화전당처럼 고급적 시나중심부에 위치한 곳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문예회관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공연장도 가능하다고 본다. 추후 공연 관람객 수요의 변화 추이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준 있는 야간공연의 준비와 중국관광객의 유치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대규모 관람객 없이는 야간공연을 펼칠 수 없을 것이고 야간공연이 없다면 대규모 관람객들에게 머물러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요 야시장의 활성화와 규모와 격식을 갖춘 야간공연의 실시는 몇 가지 측면

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친화정책의 시행에 따른 대규모 중국 관광객의 유입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들은 웅장하고 규모 있는 공연문화에 익숙하여 이들을 관광시장에 끌어들이는 데 더할 나위 없는 유인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활동공간이 부족한 공연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무대공연예술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는 데에도 적잖은 도움이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 대규모 중국관광객의 광주방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각의 만족을 주는 야시장의 확대운영과 멋진 감흥을 일으키는 야간공연의 실시는 상승작용을 일으켜 새로운 관광수요의 개발에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社說

선거 참패에도 의연한 더민주 광주시당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던 19대 국회가 오는 29일 문을 닫는다. 동시에 이날 임기가 만료되는 현역 의원들도 각자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4·13 총선에서 광주 지역 8석을 모두 국민의당에 내준 더불어민주당(더민주) 광주시당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현역이라고는 선거에 나서지 못했던 박혜자 시장 위원장과 강기정 의원 둘뿐인 데다, 선거에 나섰던 후보 전원이 낙선하는 바람에 침통하고 분위기가마져 어수선했던 터인데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 광주시당은 19대 국회 마감과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최근 총선 공약 이행과 지역 숙원 추진을 위해 3개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시당이 만들 위원회는 4·13 총선 광주발전 핵심공약인 '삼성 미래자동차 전장사업 광주유지 특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활성화 지원 특위'와 지역위

원회 등 당내 조직 발전 방안에 대해 현 장 의결을 수렴하고 중앙당에 건의하기 위한 '지방정치발전 특위' 등이다.

비록 광주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했지만 더민주 광주시당의 자세는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정당 본연의 모습이라 하겠다. 그래서 "지역구 당선자가 한 명도 없다는 이유로 지역 현안에서 물러서 있다면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박혜자 시장 위원장의 말도 진솔하게 느껴진다.

선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참패를 당하면 아예 자포자기하거나 당내에서 책임을 따지거나 내분이 일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19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로운 출발에 대비하려는 더민주 광주시당의 노력을 지역민들은 앞으로도 눈여겨볼 것이다. 위기에 빠졌더라도 진심이 배어 있는 노력이 쌓이면 누가 됐건 지지와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만큼 더욱 분발하기 바란다.

5월 단체 힘겨루기 말고 한목소리 내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의 중요 식순인 '경과보고'를 정부가 아닌 5월 관련 단체들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경과보고 발표를 보훈처에서 맡고 있어 아무래도 5·18정신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데다 심지어 왜곡하는 일까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발생과 전개 과정 및 의미 등 5·18의 경과를 기념식 참석자들에게 밝히는 '경과보고'는 지난 1997년 기념식이 정부 주관으로 치러진 이후 2007년까지 5·18 유족회장이 맡았었다. 그러다가 지난 2008년 5·18부상자회에서 잠시 맡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2009년부터는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기념곡 지정을 거부해 기념식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광주지방보훈청장과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사무소장이 경과보고를 해 왔다.

이처럼 5월단체에서 경과보고를 맡지 못한 것은 기념식 파행이 가장 큰 원인

이라고 할 수 있지만 5·18 유족회와 5·18 부상자회 및 5·18 구속부상자회 등 3개 단체장 간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3년간 계속되던 반쪽짜리 기념식이 아닌 이들 3단체가 모두 참석한 올해 정부 기념식에서도 경과보고는 광주지방보훈청장이 맡았다.

행사의 주인 격인 5·18 단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부 측 인사에게 맡기다 보니 기념식 경과보고가 형식적인 연사에 그친 데다 부적절해 보이는 표현까지 담긴다. 그러다 보니 5월 18 유족회에 따라 기념식의 진압 작전을 옹호하는 듯이 비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행히 보훈처는 5월단체 측이 경과보고 발표자를 합의 통보해 오면 언제든지 받아들여줬다고 한다. 5월 단체들은 기록권 싸움을 멈추고 하나의 모습으로 거듭나 5·18 기념행사는 물론이고 5월 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바랐던 지역민의 뜻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20여 년 판사로 근무하다 그만두고 했을 때 가족들은 걱정이 앞섰다. 가족들은 '경판'(京判)으로 잘나가던 그가 판사직을 던지고 로펌(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하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면서도 명예를 버린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전남의 한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판사가 된 '개천의 용'이었다. 사법시험과 두 번의 연수원 성적으로 결정하는 임용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판사가 됐다. 동료들 중에서 늘 선두 주자였고 10년에 한

로펌 전성시대

중인 변호사 418명 가운데 로펌 소속은 23개 법인에 140명으로 3명 중 1명꼴이다. 지난해에만 5개의 로펌이 생겼고 올해 들어서도 벌써 2개가 법인을 꾸렸다.

문제는 부장판사 승진 후 지방 근무 중에 발생했다. 대학 동기인 피고 측 변호사와 골프를 친 것이 알려지면서 서울 4대만 안으로 복귀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펌행을 택했다.

고향에선 그가 로펌 대표 변호사로 가면서 얼마나 받았는지를 두고 설왕 설래했다. 명예를 포기한 대신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추측성 이야기도 나돌었지만 가족들 누구도 그에게 직접 확

인할 수는 없었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보석(保釋) 석방을 조건으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50억 원을 받은 것이 화제가 됐다. 브로커가 끼여 한 건에 50억 수입이 가능했지만 로펌 대표 변호사인 그가 그동안 수십억 원을 벌었다는 것이 추측만은 아닐 것이라 말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우리 지역에서도 개업 변호사들이 뭉쳐 로펌을 만드는 추세다. 며칠 전 판공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판사에서 두 번째 규모의 로펌을 만들었다.

광주·전남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418명 가운데 로펌 소속은 23개 법인에 140명으로 3명 중 1명꼴이다. 지난해에만 5개의 로펌이 생겼고 올해 들어서도 벌써 2개가 법인을 꾸렸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업 변호사들이 붐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로펌 전성시대 전에는 의뢰계에서 먼저 중대형 병원 붐이 일어났다. 로펌이나 중대형 병원이 한 곳에서 윈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태계 파괴가 문제다. 단독 개업 변호사들의 곡성(哭聲)이 벌써부터 들리는 듯 하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지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